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



본 인쇄물은 FSC인증을 받은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MUJU OFFICE OF EDUCATION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 2021. 11.
Muju Education Vision Report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

2021. 11.

Muju Education Vision Report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JEOLLABUKDO MUJU OFFICE OF EDUCATION

CONTENTS

들어가며

- 01 발간사
- 03 축사

무주교육의 비전

- 07 비전과 방향
- 08 기본에 충실하게
- 10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 12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영역별 프로그램 제안

- 17 영역별 프로그램(종합)
- 18 기본에 충실하게
- 24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 31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 40 기타



부 록

- 46 무주교육 비전설정 전문가위원회
활동 경과
- 54 학생 · 학부모 ·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
간
사

“ 무주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유대감, 학생 간의 신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 교육,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

—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현장 의견을 일부 반영한 계획을 세워 학교에 안내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이 교육 주체들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나 연계성 없이, 그저 예산 집행에 급급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뜻있는 몇몇 교사와 장학사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인사이동이나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고민의 지점을 안고 2021년 4월 각 학교급별 교사, 장학사, 관리자로 구성된 무주교육 비전설정 전문가위원회가 출발하였다. 전문가위원회는 무주교육이 지닌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무주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체계적인 틀을 잡고자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첫 논의는 무주교육의 중장기 비전 설정에서부터 시작했다. 중장기 비전이 설정되어야만 교육활동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교육의 비전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린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중장기 비전을 설정한 후에는 각 비전에 맞는 단기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단기 과제는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것,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익힐 것, 우리 지역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인성과 학습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경험하고 꾸준히 활동하여 성장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특기를 계발하여 주체적인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기 주도적 삶’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무주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함으로써 교육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부작용을 막고,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면을 가지게 된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나타나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방교육의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무주 역시 지방소멸의 위험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나 무주가 지닌 특성을 활용하여 무주만이 가진 특별한 교육을 찾아내고 활용한다면 무주교육의 미래가 그저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분명 무주교육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유대감, 학생 간의 신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 교육,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무주교육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활동들이 더해진다면 무주교육의 희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만 초·중·고 교사들과 관리자, 장학사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무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는 점에서 ‘무주교육 비전설정 전문가위원회’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민 끝에 마련한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가 앞으로 무주교육의 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무주교육 비전설정 전문가위원회 위원 일동

“ 무주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



축

사

— 무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주의 건축가라고 부르는 정기용(1945~2011)입니다. 그는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지역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건축을 통해 자연과 사람과 공간의 관계 맺기를 했습니다. 저출산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지역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교육 모형 창출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교육의 비전은 건축가 정기용이 했던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공동체의 관계 맺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에는 우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기르고 이에 더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앞으로의 무주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일부 단체나 교육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주지역의 교육가족과 각급 학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동선



자연 속 **배움터**, 그 안에서 **꿈**을 키워갑니다.

- 무주의 자연환경,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의 교감을 이해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마다의 꿈을 키워갑니다.
-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랍니다.

무주교육의 비전

Part 1



무주교육의 비전



- 비전과 방향
- 기본에 충실하게
-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무주교육 비전 보고서

비전과 방향

“

무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본**이라는
단단한 땅에 **도전**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도약이라는 아름드리나무를 키워 하늘을
향해 가지를 활짝 펼치고 세상을 품길 바란다.

”

— **무주교육**의 특별함을 찾기 전에 가장 중요
한 것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완벽하
게 할 수 있어야만 그 바탕 위에서 심화학습이 가
능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맨 먼저 ‘기본’을
강조했다.

무엇이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연
습해야만 자기 것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꾸준
함’을 강조했다.

자기주도학습의 출발점이 기본을 다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시도와 참여를 통해 이
를 꽃피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을 강조했다.



기본에 충실하게

“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본이 탄탄할 때 교육적 효과는 빛을 발한다.
‘기본에 충실하게’를 위한 수행 과제로 올바른 경청과 소통, 문해력 탄탄교육, 수리력 탄탄교육,
마음튼튼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



— 첫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경청과 소통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안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발표를 잘하는 것이 적극성을 가진 학생의 모습이며 수업에 집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표에 앞서 더 중요

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이다. 서로 발표하겠다고 우후죽순 손을 들고 의견을 피력하는 산만한 교실에서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짝 활동, 모둠 활동, 전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과정에서 내 안의 사고 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학습 능력은 문해력이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모든 교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재미 위주의 영상에 익숙해지면 전두엽이 비활성화되고 책을 읽는 활동을 꺼리게 되며 논리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학생들은 한 편의 글을 읽었지만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글 속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누적된 문해력 부족 문제는 학습 흥미 저하, 공감 능력 부족,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이어지며, 이를 보완·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해력 탄탄교육이 필요하다.

— 셋째,

학생들의 수학적 기본을 다지고 수리력 향상을 위하여 수리력 탄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수학 교과의 단원별 첫 시간은 단원 도입 수업으로, 전 학년 또는 전 학기에 배운 내용에 대한 전시학습 상기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선생님, 그 내용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기억하지 못해서이기도 할 테지만, 수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리력은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 풀기에 급급하다 보니 연계성 있는 수학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끝내 수학포기자 된다. 이렇듯 수학포기자를 막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 알고리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력 탄탄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이 단순한 수와 공식, 기호들의

나열이 아닌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확성과 완결성의 즐거움을 주는 교과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 넷째,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마음튼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즘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 시간이 없다.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 아이들은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한자, 독서 등 학습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이어지는 학습의 굴레는 스트레스가 되며 꿈에 대한 생각마저 앓아간다. 마음튼튼 프로그램을 통해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유, 맘껏 뛰어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중고등 학생들은 끊임없이 이어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었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여정 즉,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을 이해한다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 꾸준함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배우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꾸준한 노력 없이는 어떤 것도 제대로 익힐 수 없다. ‘성장을 위해 꾸준히’를 위한 수행 과제로 방과후학교 내실화, 인생스포츠 PICK, 예술감수성 UP, 마을교육 체계화를 설정하였다. ”



2.

— 첫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수준을 넘어 ‘꾸준히’ 활동하는 방식으로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몇 개월 해보고 그만두거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최소 2~3년, 길게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운영하려면 1년 단위 프로그램 개설과 폐지가 아닌 장기 계획을 세우고 강사 수급을 예상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몇 해가 지났을 때 기능면, 신체발달면, 지식적인 면에서 향상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둘째,

학창 시절에 학업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생스포츠 PICK’을 제안한다. 청소년 시기에는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평생 사용할 여러 가지 능력이 발달한다. 이때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운동을 병행하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단순히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넘어 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에 꾸준히 참여함으로 학생들의 실력과 만족감은 향상될 것이다. 두뇌 발달에도 적절한 운동은 필수이다. 학습을 위한 두뇌 활동시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 운동으로 혈류량이 많을수록 두뇌로의 산소공급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익힌 운동능력은 성인이 된 후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 셋째,

학교는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키워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든 교육의 방향이 ‘성적 향상’에 맞춰지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학생들의 다름이 인정되는 학교 안에서 각 개인의 다양한 감수성이 꽃피는 모습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자극으로 예술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형 프로그램과 기초·기본-중급-심화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기능 습득형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꾸준한 노력과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학생들의 삶이 ‘예술 감수성 UP’을 통해 풍요롭게 빛날 것이다.

— 넷째,

배움의 공간을 교실 넘어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마을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 활자적 지식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 등 큰 장점이 있다. 마을교육은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과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계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교사들과 마을활동가들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 마을 사람들 간의 정이 살아 있고 마을과 연계하여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 우리 무주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마을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양하고 생활연계형, 답사형 체험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을교사와의 협업 수업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학생들은 다양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를 위한 수행 과제로 진로탐색과 특기계발, 꿈담 프로그램,
 학생중심 자치·동아리 활동, 환경생태 감수성 교육을 설정하였다.



— 첫째,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진로탐색과 특기계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
 등학생들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장래희망도 다양하다. 하지만 중학
 생이 되면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상급학교 진학에 힘을 쏟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진
 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는 진정한 진로 고민이 아닌 좋은 대학

에 가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소질과 특기를 계발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에게 다각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키
 워주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 둘째,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꿈담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숙함에서 오는 학생들의 적극성 저하,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인한 체험 범위의 한계, 학년이 달라짐에 따른 중복 체험 등의 이유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면에서 2019년에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처음 실시한 ‘중학교 2학년 고구려·발해 역사문화 탐방’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발전시켜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 셋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 중심 자치·동아리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중심 자치 활동을 통해 학교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짚어 보는 것은 모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동아리 계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이다.

— 끝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환경·생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교육 현장에서 환경, 생태 감수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때다. 올해 4~5월, 절기상 봄이었지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한파를 겪으며 환경오염으로 촉발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구의 날 행사, 세계 환경의 날 행사 때에만 반짝 하는 실천만으로는 더 이상 지구를 살릴 수 없다.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 땅, 하늘, 바다 등을 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무주의 남대천에는 수달이 헤엄치며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가 많다. 신경써서 보호하면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무주에 있는 여러 생태환경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지구 살리기 운동을 실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을 속 작은 학교, **사랑**과 **신뢰**로 성장합니다.

- 지역사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배움의 가능성을 넓혀 줍니다.
-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작은 학교라서 가능합니다.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학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역별

프로그램 제안

Part 2



영역별 프로그램 제안



- 영역별 프로그램(종합)
- 기본에 충실하게
- 성장을 위해 꾸준하게
-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 기타

영역별 프로그램 (종합)

기본에 충실하게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I-1	올바른 경청과 소통	유·초·중·고
I-2-(1)	문해력 탄탄교육(저학년 집중 한글교육)	초 1~3
I-2-(2)	문해력 탄탄교육(독서·글쓰기 교육)	초·중·고
I-3	수리력 탄탄교육	초·중·고
I-4-(1)	마음튼튼 프로그램 (마음도덕 놀이 및 미술 프로그램)	유, 초 1~2
I-4-(2)	마음튼튼 프로그램 (나를 찾아가는 여행)	중 1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III-1-(1)	진로탐색과 특기계발(진로특강)	중·고
III-1-(2)	진로탐색과 특기계발(진로탐색검사 및 교사교육)	중·고
III-1-(3)	진로탐색과 특기계발(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확대)	고 2~3
III-2	꿈담프로그램(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초6, 중2
III-3-(1)	학생중심 자치활동 지원(학생회 전용카드 발급)	초·중·고
III-3-(2)	학생중심 자치활동 지원(학생자치활동 사례교육)	초·중·고
III-3-(3)	학생중심 동아리활동 지원 (초·중·고 연계 동아리 운영)	초·중·고
III-3-(4)	학생중심 동아리활동 지원(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중·고
III-4	환경, 생태 감수성 교육	유·초·중·고

성장을 위해 꾸준히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II-1	방과후학교 내실화	초·중·고
II-2	인생스포츠 PICK	초·중·고
II-3	예술 감수성 UP	초·중·고
II-4	학교급별 마을교육 프로그램	초·중·고

기타

번호	프로그램명	대상
IV-1	태권도교육 체계화	유·초
IV-2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중 1
IV-3	유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교원
IV-4	학생 사회참여 활동 지원	중·고

※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예시자료임

※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상·방법·예산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임

I-1

올바른 경청과 소통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유·초·중·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단순한 듣기의 과정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일은 진정한 어울림의 시작임
- ▶ 경청을 통해 상대와의 소통은 물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음
- ▶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이 필요함

— 현 상황

- ▶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말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음
- ▶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중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로 인하여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 속 올바른 소통이 사라지게 됨

— 제안 내용

- ▶ 올바른 경청과 소통 방법에 대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함

— 세부 운영계획

- ▶ 다양한 경청 방법 지도
 - 반응하며 듣기, 말한 것을 확인하며 듣기, 공감하며 듣기, 질문하여 듣기 기록하며 듣기 등
- ▶ 다양한 의사 소통 방법 지도
 - 잘 듣기(기본), 잘 묻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I/Do-message, 눈높이 맞추기, 관심 기울이기 등
- ▶ 다양한 의사 소통 놀이 실시
 - 생각 카드, 생각 나눔 놀이, 의사소통 온도계 놀이 등

— 기대효과

- ▶ 올바른 경청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 유지할 수 있음
- ▶ 다양한 의사소통 놀이를 통한 올바른 의사 표현 방법 습득,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됨



1-2-(1)

문해력 탄탄교육 (저학년 집중 한글교육)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시기	주 3~5회

— 목적 및 필요성

- ▶ 입학 초기 체계적 한글해득교육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요구됨
- ▶ 한글 해득은 학습의 출발이며 저학년 집중 한글교육을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학생의 자존감 향상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현 상황

- ▶ 한글 미해득 학생이 많아 개인별, 수준별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대부분 학생의 한글 해득 시기가 1학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일수가 적어 2학년에 한글 미해득 학생이 평년보다 많음
- ▶ 전 학년에 걸쳐 기초 및 교과부진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기초 학력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학년에 집중하는 한글 지도가 이뤄지지 않음

— 제안 내용

- ▶ 한글 해득 수준 조기 진단 필요
- ▶ 개인 맞춤형 한글 해득 교육 집중 실시
- ▶ 한글 해득과 관련하여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신속한 안내

— 세부 운영계획

- ▶ 정규 교육과정 내 책임 있는 한글 지도 및 방과후 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1:1 한글 맞춤 교육 실시
-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한글 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한글 강사 수급
 - 한글 지도 자격을 갖춘 강사 지원
 -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 공백없이 연속적으로 실시
 - 방과후시간 공백없는 한글지도(월~금)를 통해 한글 해득 시기 앞당김
 - 저학년(1~3학년) 중심의 한글 집중 지도
- ▶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 배움의 즐거움 습득, 자존감 및 학습에 대한 참여 의지가 향상됨
- ▶ 한글 해득을 통한 학습 결손 해소 및 오고 싶은 학교로 변화함



1-2-(2)

문해력 탄탄교육 (독서 · 글쓰기 교육)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초 · 중 · 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기본 역량임
- ▶ 디지털기 사용시간 증가 및 기타 요인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력 하락으로 이어져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원인이 됨

— 현 상황

- ▶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문장제 ·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 누적된 문해력 부족 문제는 학습 흥미 저하, 공감 능력 부족, 자존감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 읽기 연습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문해력 저하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문해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치료적 지원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임
- ▶ 초등학생은 소리 내어 책 읽기, 중고등학생은 관심 분야 책 읽기 필요

- ▶ 전라북도교육청 무주도서관의 독서 ·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 ▶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 ▶ 문해력 향상을 위한 언어발달센터 (치료)프로그램 지원

— 세부 운영계획

- ▶ 학급 및 학년 특성에 맞는 의무적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 실시
- ▶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생 희망학생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 ▶ 기초문해력 지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사연수 및 동아리 운영
- ▶ 독서토론 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 문해력 탄탄 교육을 통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공감 능력 향상됨
- ▶ 문해력 향상을 통한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와 집중력 증가함



1-3

수리력 탄탄교육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초 · 중 · 고
시기	주 3~5회

— 배경 및 필요성

- ▶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은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수포자' 비율이 1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 개념 · 원리의 이해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계산의 반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 현 상황

- ▶ 많은 학생들이 이론이나 이치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 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 ▶ 서술형 · 문장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제안 내용

- ▶ 수업 중 충실한 원리 이해 필요, 교구활용수업 강화(특히 초등 저학년)
- ▶ 기초수학 더딤학생을 위한 교구 활용 방과후학교 수업 개설
- ▶ 방과후강사(교구활용 기초수학 강사) 양성: 방과후학교지원 센터

— 세부 운영계획

- ▶ 초등학교 시기 다양한 수학 교구 활용 및 신체 활동 연계 수업 실시
- ▶ 중 · 고등학교 수리력 부족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 초등학교 고학년 ~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멘토-멘티제도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 수학 자체에 대한 배움의 즐거움을 습득할 것임
- ▶ 수학적 개념 및 원리 이해를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수리력 향상
- ▶ 학생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 증가 및 친구와의 신뢰관계 및 래포 형성



1-4-(1)

마음튼튼 프로그램 (마음토닥 놀이 및 미술 프로그램)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유치원, 초등 1~2학년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저학년은 학교적응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신체 및 미술놀이임
- ▶ 미술놀이를 통해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음
- ▶ 신체놀이를 통해 친구들 간의 소통을 할 수 있으며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현 상황

- ▶ 초등 저학년 시기, 심지어는 유치원 시기부터 학습지를 풀거나 보습 학원 등에 다니며 학습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함

— 제안 내용

- ▶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신체 및 미술놀이 권장
- ▶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체계화 및 내실화 필요

- ▶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을 신체 및 미술놀이 프로그램으로 집중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유아 ~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많이 뛰어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세부 운영계획

- ▶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지속
- ▶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신체 및 미술 놀이 프로그램 운영
 - 무주군 1~2학년 전체 대상
 - 보고서 24쪽(II-1 방과후학교 내실화) 참조

— 기대효과

- ▶ 신체 및 미술 놀이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학교생활 적응
- ▶ 또래놀이 활동을 통한 친구와의 상호작용 증가 및 학업 스트레스 해소



1-4-(2)

마음튼튼 프로그램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영역	기본에 충실하게
대상	중학교 1학년
시기	학기 초

— 목적 및 필요성

- ▶ 마음튼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알고 그 힘으로 자신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자 함
- ▶ 나의 본질 이해와 더불어 각 사람이 다름을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원만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됨

— 현 상황

- ▶ 타인이 이끌어 가는 삶으로 정체성을 잃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늘어나고 있음
- ▶ 성격검사, 진로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앞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우선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제안 내용

- ▶ 자아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나'를 찾는 활동으로 수지에니어그램 프로그램 실시
- ▶ 수지에니어그램 프로그램의 결과 해석, 학생 이해 증진을 위해 중학교 교원 대상 연수도 필요함

— 세부 운영계획

- ▶ 수지에니어그램 프로그램 실시
 - 무주 관내 중학생 1학년 전체, 1회 6시간, 학기초 실시
 - 나의 본질에 대한 시각적 도식화를 통한 이해
 - 나와 친구에 대한 이해 자료로 활용
- ▶ 학생 이해 증진을 위한 수지에니어그램 교사 연수 실시

— 기대효과

- ▶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며 존재 자체로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임
- ▶ 각자의 본질 이해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존중하게 될 것임



II-1

방과후학교 내실화

영역

성장을 위해 꾸준히

대상

초·중·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해야 함
- ▶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함
- ▶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영이 필수적임

— 현 상황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꾸준한 운영에 방해가 되기도 함
- ▶ 몇 년을 배워도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함

— 제안 내용

- ▶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최소 3년 이상) 운영
- ▶ 지속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전문단체가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 **초등 1~2학년:** 몸놀이, 미술놀이 위주의 활동적인 프로그램 편성·운영
 - 학교 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반영

- ▶ **초등 3~4학년:** 자신의 특기·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음악·미술·체육 각각 2~4가지 프로그램 개설. 강좌별 주 4회 운영
-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학교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단체에서 운영)

- ▶ **초등 5~6학년:** 초등 3~4학년 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변경 최소화)

- 강좌별로 주 2회 운영. 심화과정 커리큘럼으로 충실히 운영
-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학교공간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단체에서 운영)

- ▶ **중학교 이상:** 초등 5~6학년 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

- 전문과정 커리큘럼으로 충실히 운영
- 고등학생 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
- 마을학교 형태로 운영

- ▶ 성과평가(1~3년 주기)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 향상 도모



— 운영 예시

▶ 초등학교

구분	월	화	수	목	금
초 1~2 (활동형)	⑥ 미술놀이 ⑦ 놀이체육	⑥ 미술놀이 ⑦ 놀이체육	방과후학교 미운영	⑥ 미술놀이 ⑦ 놀이체육	⑥ 미술놀이 ⑦ 놀이체육
초 3~4 (특기탐색)	⑥ 음악2강좌 ⑦ 미술2강좌 ⑧ 체육2강좌	⑥ 음악2강좌 ⑦ 미술2강좌 ⑧ 체육2강좌		⑥ 음악2강좌 ⑦ 미술2강좌 ⑧ 체육2강좌	⑥ 음악2강좌 ⑦ 미술2강좌 ⑧ 체육2강좌
초 5~6 (심화과정)	⑦ 음악2강좌 ⑧ 체육2강좌	⑧ 미술2강좌		⑧ 미술2강좌	⑦ 음악2강좌 ⑧ 체육2강좌

▶ 중학생 이상

구분	화	화	목	금	토
1권역 무주·부남·적상 (전문과정)		⑨ 미술2강좌 ⑨ 음악2강좌 ⑨ 체육2강좌		⑨ 미술2 ⑨ 음악2 ⑨ 체육2	10:00~11:40 체육2 13:00~14:40 미술2 15:00~16:40 음악2
2권역 안성·설천·무풍 (전문과정)	⑨ 미술2강좌 ⑨ 음악2강좌 ⑨ 체육2강좌		⑨ 미술2 ⑨ 음악2 ⑨ 체육2		10:30~12:10 음악2 13:30~15:10 체육2 15:30~17:10 미술2

※ 초등학교 시정표 기준으로 9교시로 기재했으나 중학교 시정으로는 8교시에 해당함

— 기대효과

- ▶ 특기·적성 발견 및 지속적인 계발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체계화로 해당 분야 실력 향상 가능

II-2

인생스포츠 PICK

영역

성장을 위해 꾸준히 하게

대상

초·중·고

시기

주 2~3회

— 목적 및 필요성

- ▶ 운동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 필요하지만 두뇌발달에도 필수적임
- ▶ 역사적으로 인류는 수백만년 동안 하루 20km씩 걷는 생활을 해 왔으나 현대인류는 몸의 움직임이 너무 적음. 이는 건강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실행능력(문제해결능력, 주의력, 정서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 두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꾸준한 운동이 이를 가능하게 함
- ▶ 인생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것은 학창시절에는 학업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평생의 삶의 질도 높이는 의미 있는 활동임

— 제안 내용

- ▶ 전문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 무주군체육회, 방과후마을 학교, 교내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몇 가지 스포츠를 접하고, 그 중 여건에 맞는 운동을 선택, 지속적으로 참여
- ▶ 경기단체나 체육회 등에서 종목별 프로그램 마련하고 평일과 주말에 지속적으로 운영. 학생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참여

- ▶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특화 종목을 정하여 운영. 선택권은 제한되나 해당 종목 실력은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지속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 **무주읍:** 초등학교(3~6학년) 300여명, 중학생 300여명, 고등학생 250명
 - 경기단체 · 체육회 · 방과후마을학교 각각 1~2종목 운영: 총 3~6종목 운영
 - 종목별 초 · 중 · 고 각각 50~100명 참여
- ▶ **안성면 · 설천면:** 지역별 초(3~6학년) 6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30명
 - 경기단체 · 체육회 · 방과후마을학교에서 1종목 운영: 총 2~3종목 운영
 - 종목별 초 · 중 · 고 각각 10~20명 참여
- ▶ **무풍 · 적상 · 부남:** 지역별 초(3~6학년) 2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10명
 - 경기단체 · 체육회 · 방과후마을학교에서 1종목 운영: 1종목 운영
 - 종목별 초 · 중 · 고 각각 10~20명 참여



— 운영 예시

▶ 7·8교시 초등학교, 9교시 중학교, 10교시 고등학교 프로그램

구분	월	화	수	목	금
무주읍 (초등)	⑦ ⑧ 축구, 인라인, 탁구, 농구, 배드민턴		⑦ ⑧ 축구, 인라인, 탁구, 농구, 배드민턴		⑦ ⑧ 배구
무주읍 (중·고)		⑨ ⑩ 축구, 인라인, 탁구, 농구, 배드민턴		⑨ ⑩ 축구, 인라인, 탁구, 농구, 배드민턴	⑨ ⑩ 배구
안성면 (초·중·고)			⑦ ⑧ ⑨ ⑩ 풋살, 배드민턴, 인라인		⑦ ⑧ ⑨ ⑩ 풋살, 배드민턴, 인라인
설천면 (초·중·고)		⑦ ⑧ ⑨ ⑩ 풋살, 배드민턴, 인라인		⑦ ⑧ ⑨ ⑩ 풋살, 배드민턴, 인라인	
무풍면 (초·중·고)	⑧ ~ ⑩ 인라인		⑧ ~ ⑩ 인라인		
적상면 (초·중·고)		⑧ ~ ⑩ 배드민턴		⑧ ⑨ ⑩ 배드민턴	
부남면 (초·중·고)			⑧ ~ ⑩ 탁구		⑧ ~ ⑩ 탁구

— 기대효과

- ▶ 평생 스포츠 기능 습득
- ▶ 지역 내 경기단체, 체육회 등에서 전문적·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국형 생활체육 활성화 가능

II-3

예술 감수성 UP

영역

성장을 위해 꾸준히

대상

초·중·고

시기

주 1~2회



— 배경 및 목적

- ▶ 학생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려면 강의를 듣고, 수업 중에 해보는 것에 더해 스스로 연습하고 익숙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함
- ▶ 특기적성 계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활동 해야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익힐 수 있음
- ▶ 매년 선택권을 부여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기초 단계만 경험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다보니 중급이상의 실력을 갖추는 꾸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장



— 제안 내용

- ▶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 제공
 - 교육지원청(지자체)에서 다양한 공연을 관내 공연장에 마련하고 학생 관람
 - 대도시 예술공연에 학교단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활동형’ 프로그램과 ‘기능습득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 ▶ 활동형 프로그램
 -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둬.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단계 구분 없음
 - 초등 1~4학년에 집중 편성
- ▶ 기능 습득형 프로그램
 - 기능 습득을 위한 기초·기본-중급-심화 커리큘럼 구성
 - 단순 활동 반복 지양
 - 초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 흥미·적성에 맞는 분야 선택 → 꾸준한 활동

— 세부 운영계획

- ▶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 제공
 - 공연단체를 섭외하여 무주 예체문화관, 태권도원 공연장 등에서 대규모 공연 실시. 학교 단위로 학생 인솔하여 관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열리는 공연에 학교 단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
- ▶ 활동형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책놀이, 전래놀이, 텃밭가꾸기, 뉴스포츠, 칼라믹스, 비즈공예 등

- 해당 수업시간에 충분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 커리큘럼은 수준별·단계별 구성보다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
- ▶ 기능 습득형 프로그램: 미술(수채화, 서예 등), 음악(기타, 바이올린 등)
 - 방과후마을학교 형태로 운영
 - 초등 2~4학년 시기에는 학기별, 학년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
 - 초등 5학년 이후로는 1~2가지 프로그램을 선택(변경 기회 1회만 제공)하여 해당 분야 기능을 충분히 숙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소인수(3명~5명) 강좌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 ▶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영역을 선택하여 꾸준히 활동하도록 체계화
- ▶ 꾸준한 활동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습득
- ▶ 예술적 감수성 향상을 통해 교양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II-4

학교급별 마을교육 프로그램

영역

성장을 위해 꾸준히 하게

대상

초·중·고

시기

연 1~4회

—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들이 삶의 터전이자 문화적 모태가 되는 '마을'에 대해 알아야 함
- ▶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수업에 활용하면 살아 있는 교육,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음
- ▶ 마을교육이 활성화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등 교급별·학년별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 장소별·학교급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
- ▶ 교육과정(교육내용 및 성취수준)을 분석하여 마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 세부 운영계획

- ▶ 교사연구회 구성·운영
 - 마을교육 프로그램 분석 후 장소별·학교급별 프로그램 개발
- ▶ 2021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학교에 안내

— 진행 상황

- ▶ 교사연구회 구성·운영
 - 무주초 교사: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 학교-마을교육과정 연계 가능성 검토
 - 설천중·무주고: 교과별 교육과정 분석, 학교-마을교육과정 연계 가능성 검토
- ▶ 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학교-마을교육과정 연계 가능성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장소별 프로그램을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정리하고 있음
- ▶ 장소별 추천 프로그램, 학교급별 추천 프로그램을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

— 기대효과

- ▶ 장소별·학교급별로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중복·누락 없는 교육 실시
- ▶ 체계적인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무주를 깊이 이해하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



III-1-(1)

진로탐색과 특기계발
(진로특강)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중 · 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다양한 직업 및 직업군에 대한 탐색 기회 제공
- ▶ 실제 직업인을 통해 진로 설정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및 계획 수립 지원
- ▶ 직업과 인간의 삶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제적인 조망 능력 향상

— 현 상황

- ▶ 학교 단위로 희망하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직업인 1명의 특강을 학년, 전교생 단위로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듣는 방식
- ▶ 교육효과가 높은 강사 섭외 어려움(학교 구성원 인맥에 의존)
- ▶ 학교교육과정 내 진로 특강은 예산 등의 문제로 강사 수, 교육시 수가 제한적
- ▶ 위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학생이 흥미,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불가능하며, 직업과 삶에 대한 조언 및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

— 제안 내용

- ▶ 직업적인 전문성과 인생 멘토로서 인성을 고루 갖춘 영향력 있는 강사 섭외 방안(예산 및 강사 섭외 담당 기관)
- ▶ 단위학교별 실시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해 지역 청소년 기관의 도움 필요

— 세부 운영계획

- ▶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직업인들과 네트워크를 담당할 기관 필요 (무주청소년수련관 추천)
- ▶ 담당 기관에서 연간 주말 프로그램으로 개설(예: 월별 1직업)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인의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기대효과

- ▶ 학생들에게 진로 및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강사 섭외 가능
- ▶ 청소년들에게 일회성, 획일적 진로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다양한 진로교육 가능



III-1-(2)

진로탐색과 특기계발
(진로탐색검사 및 교사 교육)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중 · 고

시기

3~4월

— 목적 및 필요성

- ▶ 진로방향 설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진단검사 필요
- ▶ 진단검사를 종종 실시하지만 검사 결과에 대한 교사들의 해석 능력이 부족해 상담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교육도 병행해야 효과적인 진로지도 가능

— 제안 내용

- ▶ 중1과 고1 때는 진단검사 5종을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학생들의 적성을 조기에 진단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 진단검사 후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교사 연수 병행

— 세부 운영계획

- ▶ 중1과 고1의 창체 진로활동시간에 진로탐색검사 5종 실시
 - 고용정보원에서 무료 제공하는 5종 검사(흥미 · 적성 · 가치관 · 인성 · 진로발달) 실시
 - 추가로 유료 MBTI 성격검사나 U&I학습유형검사 등의 실시와 특강도 필요함
- ▶ 관내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5종 검사결과의 해석과 관련한 연수 실시

— 기대효과

- ▶ 학생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합리적 진로 설계능력 함양
- ▶ 관내 교사들의 학생 상담에 유용한 검사결과 해석 능력 신장



III-1-(3)

진로탐색과 특기개발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확대: 예체능)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고등학교 2~3학년

시기

연 중

— 배경 및 필요성

- ▶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의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 시 일반계 학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예체능계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현 상황

- ▶ 대학의 일반계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지자체에서 방과후학교 및 기숙형 학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체능계 학과 지망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큼
 - 2021학년도 무주고 3학년 기준 미술 7명, 체육 4명, 승무원 1명 등 총 12명

— 제안 내용

- ▶ 대학의 예체능계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진로 찾기에 도움을 주고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음

— 세부 운영계획

- ▶ 예체능 지망 학생들의 학원비 수강비 중 일정 비율 지원
 - 예체능계 학생의 월 평균 수강료는 60만원 수준임
 -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일반계 학생 수준의 학원 수강료를 보전하여 주는 방식
- ▶ 일반계 지망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 기대효과

- ▶ 사교육비 부담과 정보 제한으로 예체능계 진학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 ▶ 예체능 지망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일부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음



III-2

꿈담 프로그램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초6, 중2

시기

연 1회

— 목적 및 필요성

- ▶ 무주지역의 학생들이 해당 학년에 맞는 역사 관련 체험학습을 체계화하여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 현 상황

- ▶ 각급 학교가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리적 또는 예산의 한계로 비슷한 지역에 한정하여 체험학습 진행
- ▶ 지역에 많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차량 대여 등도 쉽지 않음
- ▶ 현재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해외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지역 학교, 학부모 호응이 긍정적임

—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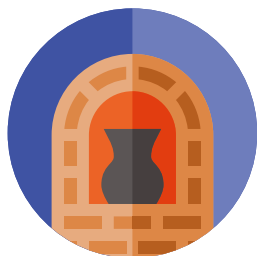
- ▶ 현행 중학교 2학년 대상 ‘글로벌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속운영
- ▶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에게 ‘독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제공

— 세부 운영계획

- ▶ 무주지역 10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2~3팀으로 나누어 진행
- ▶ 교육청과 학교 담당교사 협의회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수립
- ▶ 협의를 통해 결정된 세부 계획을 바탕으로 업체선정 및 체험학습 진행
- ▶ 필요시 군청에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위탁하여 운영 가능

— 기대효과

- ▶ ‘독도 역사문화탐방’ - ‘글로벌 해외역사문화탐방’으로 이어 지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체험활동으로 무주에서 학교를 다니면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학생들의 자긍심과 대외적으로도 선명한 홍보 효과
- ▶ 지역의 학생 지원활동으로 지자체-교육기관의 긍정적 연대 활동의 모범사례가 될 것



III-3-(1)

학생 중심 자치활동 지원 (학생회 전용 카드 발급)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초 · 중 · 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회 활동 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담당 교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 예산 계획에 없는 창의적 사업이나 돌발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집행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 상황

- ▶ 1년간 계획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르다 보니 학생회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 요소가 되며, 오히려 지도교사의 역량이나 관심에 따라 학생회 활동의 성과가 좌우되기도 함
- ▶ 활동 계획과 실행은 학생회가 하는데 품의-결재 등 예산지출과정은 교사가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 제안 내용

- ▶ 교사동아리에 카드를 발급하듯이 학생회 예산의 일부(초기에 시범적으로) 또는 전부를 학생회 간부 통장(혹은 담당교사 직불카드)으로 입금하고, 집행 후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만 제출토록 함

— 세부 운영계획

- ▶ 시행 초기에는 고등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예산 중 일정 금액만을 전용카드로 발급
- ▶ 문제점 등을 평가한 후에 제도를 보완하고 발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도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점차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시행
- ▶ 학생회가 예산 수립과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 하도록 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이 되도록 함

— 기대효과

- ▶ 단위 학교별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 학생회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이 가능함



III-3-(2)

학생 중심 자치활동 지원 (학생 자치활동 사례 교육)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초·중·고

시기

필요시

— 목적 및 필요성

- ▶ 활동 가능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
- ▶ 학생회 활동 경험이 부족해 전년도 활동을 답습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구안하는데 한계를 보임
- ▶ 학생회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함

— 현 상황

- ▶ 학생회 간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야 하고 어떻게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경험의 공유도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제안 내용

- ▶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초·중·고 학생회 간부들을 모아 학생회 활동내용 및 활동시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함

— 세부 운영계획

- ▶ 2022학년도 3월 초에 초·중·고 학생회 회장을 소집하여 계획 수립
 - 구체적으로 참석 범위와 진행 방식, 개최 시기 등을 결정
- ▶ 학생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집행

— 기대효과

- ▶ 학생회 활동에 대한 경험 공유를 통해 학생회 활성화에 기여
- ▶ 각 학교 학생회의 교류 활동이 향후 지역 학생들의 학생회, 동아리 연합 활동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III-3-(3)

학생 중심 동아리활동 지원 (초·중·고 연계 동아리 운영)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초·중·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기회 단절로 충분한 기량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
- ▶ 초·중·고의 선후배로 연계되는 탄탄한 학생 자치조직 구축 가능
-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민·지역행사와 연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무주교육을 널리 알리는 홍보 대사의 역할도 가능함

— 현 상황

- ▶ 학교별로 동아리가 있으나, 일관되게 이어지는 동아리는 부재함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풍물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중·고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밴드 동아리도 단절 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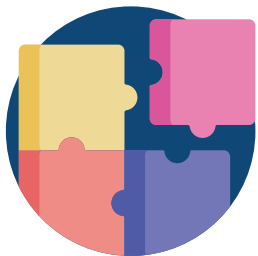
- ▶ 읍면별로 초·중·고를 연계한 동아리를 선정하고, 강사·비품 지원
- ▶ 동아리 활동시간과 특성에 맞는 장소 제공

— 세부 운영계획

- ▶ 읍면별 연계 운영 동아리 선정: 학교 밖 활동공간 활용
 - 현재 읍면별로 활성화된 동아리를 파악하고 강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동아리 선정하여 지원
- ▶ 학교나 지역 행사에 동아리를 초청하여 발표기회 제공 및 홍보

— 기대효과

- ▶ 일부 동아리의 경우 장시간 팀을 이루고 활동을 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동아리 활동의 질적 향상 기대
- ▶ 지역을 대표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축제 등에서 활동 가능



III-3-(4)

학생 중심 동아리활동 지원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중 · 고

시기

11월

— 목적 및 필요성

- ▶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타학교로의 전파를 도모함
- ▶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현 상황

- ▶ 지역의 전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문화축제가 부재
- ▶ 무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동아리신문 만들기 대회'를 통해 가능성이 확인됨

— 제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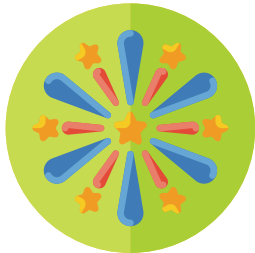
- ▶ 학교나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생적인 중고생 동아리의 문화축제로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 교사동아리인 '중등연구회'가 주관하여 동아리 연합 페스티벌 추진
 - 1학기 초에 학교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함
 - 2학기 초에 학교별, 청소년 단체별 동아리 참여 계획서 수합 후 추진
 - 날짜는 가급적 학생의 날(11월 3일)을 전후한 토요일로 함
- ▶ 참여를 신청한 동아리에는 축제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전 지원
- ▶ 무주청소년수련관의 꿈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학생축제로 운영 가능

— 기대효과

-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
- ▶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연대의식과 애향심 함양



III-4

환경, 생태 감수성 교육

영역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대상	유·초·중·고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기후변화에 따른 실천적 환경교육 필요
- ▶ 지역 특색을 살리는 환경, 생태 동아리활동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현 상황

- ▶ 교과서 및 영상매체로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감이 미흡하고 실질적이지 않음

— 제안 내용

- ▶ 학급별·학교별 환경교육 내실화
- ▶ 지역환경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제안

— 세부 운영계획

- ▶ 환경교육(학급별, 학교별): 유·초·중·고
 - 쓰레기 만들지 않기, 버리지 않기, 잘 처리하기 교육
 - 내 지역 분리수거 실태파악(학급, 학교, 무주군 전체)
 - 무주군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및 분리수거장 견학으로 실태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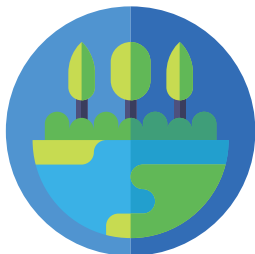
- 쓰레기 분리수거 종류 파악하기(학급활동)
- 나 자신부터, 학급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 모색하기(학급활동)
- 내 고장 주변 하천 정기적인 정화활동(초,중,고 연합 또는 학급별 봉사활동)

▶ 생태감수성 교육(동아리 활동): 중·고등학교

- 주변 하천 수질오염검사(BOD, COD, DO) 및 하천생태 조사보고서 작성
- 주변하천 생태 지도 만들기(수달, 감돌고기 안내판 제작)
- 개구리(맹꽁이) 부화 실험
- 반딧불이 일생 탐구(농업기술센터) 및 반딧불이 탐사 봉사활동 등
- 무주 천연기념물 탐사(반딧불이, 구상화강편마암, 반송)

— 기대효과

- ▶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 경각심 고취
- ▶ 몸소 실천하는 활동으로 환경교육 효과성 증대
- ▶ 지역의 생태계 및 환경 탐구를 통한 애향심 고취



IV-1

태권도교육 체계화

영역

기타

대상

유·초

시기

연 중



— 배경 및 필요성

- ▶ 2006년부터 무주군에서 추진해온 학교태권도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체계 변경 필요
- ▶ 학교에서 다른 교육활동을 포기하고 주당 1시간씩의 태권도 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 태권도의 고장으로서 모든 학생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현실
- ▶ 모든 학생이 태권도인으로서의 태도를 갖고 태권도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 태권도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 ▶ **1안)**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사설 태권도체육관에서 교육받고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 **2안)** 학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확보해주고, 태권도원에서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수련한 후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

— 세부 운영계획

- ▶ 주당 1시간만 교육하는 데다가 교육기간을 너무 길게(최대 8년) 확보하다 보니 집중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커리큘럼도 너무 느슨함
- ▶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7~8년을 배우는데도 태권도를 수련한다기보다는 기초만 맛보는 교육이 반복되고 있음
- ▶ **1안)**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정 기간(최대 2년) 동안 사설 태권도체육관에서 교육받고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우처(자부담 30~50%) 제공
 - 무주 군민이면 누구나 태권도 유단자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아 교육참여도가 높음
 - 추가교육(기간 내에 승품심사 불합격, 2~3품 등 수련)은 전액 자부담으로 꾸준히 수련 가능
 - 제한사항: 면 지역에 사설 태권도학원 없음

- ▶ **2안)** 유치원~초등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태권도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참여율도 높음. 이 연령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방과후학교 시간을 확보하여 주당 2시간씩 확보
 - 초등 3학년 여름방학 중 2~3주간의 특별 수련프로그램 운영
 - 초등 3학년 가을에 승품심사
 - 승품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초등 4~5학년 때 재응시 가능(자비 부담)
 - 제한사항: 무주 · 안성 · 설천 지역 사설태권도학원 수련생 중복 수업
- ▶ 면지역은 2안으로, 읍지역은 1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기대효과

- ▶ 무주 전 군민 태권도인의 구체적인 목표달성 가능
- ▶ 학교교육과정 정상운영, 학생들의 기본 특기계발

IV-2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영역

기타

대상

중학교 1학년

시기

중학교 입학 시

— 배경 및 필요성

- ▶ 중학교부터는 교과수업, 수행평가 등 교육활동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 ▶ 현재는 학교 단위로 스마트기기를 구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보급 수량이 충분하지는 않음
- ▶ 활동 시마다 이를 배부하여 활용하고 다시 걷어서 유지보수, 보관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매 수업시간마다 설정을 새로 바꿔야 하는 등 교실수업에 실제로 활용하기 매우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함
- ▶ 학생들이 모두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보급받아 활용한다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교육활동의 성과도 향상될 것



— 제안 내용

- ▶ 학생 개개인에게 스마트기기 보급 활용
 - 초등학교 졸업 시 또는 중학교 입학 시 보급
- ※ 스마트기기 내용연수는 5년(조달청고시 제2018-14호)으로, 중학교 입학 시 보급받아 고교 졸업시까지 활용하면 수명을 다하게 됨
- 개인별 제공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학생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하되 정기재물조사 시마다 확인·점검
- ▶ 개인이 관리하면서 다양한 학습활동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 교실수업 시 스마트기기 활용수업 여건 개선, 활용도 증대
- ▶ 방과후에도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 시 활용 가능

IV-3

유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영역	기타
대상	유·초·중·등 교원
시기	연 중

— 배경, 목적, 필요성

- ▶ 유·초·중등교원은 각자 교육과정 전문가이지만, 타 학교 급의 교육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확보 되지 않음
- ▶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성취수준을 초등(중등) 교원과 자세하게 공유하고 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이 생각하는 출발점행동(수준)을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단계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제안 내용

- ▶ 유치원교사와 초등 1·2학년 담임교사가 함께 하는 워크숍 실시
- ▶ 초등 5·6학년 담임교사와 중학교 교과교사가 함께 하는 워크숍 실시
- ▶ 연 2회 교류: 1학기 초, 여름방학 중
- ▶ 학교급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수준 공유

— 세부 운영계획

- ▶ 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이 함께 하는 워크숍
 - 일정: (1차) 2월말~4월초 / (2차) 7월초~8월말
 - 대상: 유치원교사 10명, 초등교사(1·2학년 담임) 20명
 - 방법: 강의 및 조별토론
 - 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학교생활, 필요한 출발점행동·역량 등 공유
- ▶ 초·중학교 선생님이 함께 하는 워크숍
 - 일정: (1차) 2월말~4월초 / (2차) 7월초~8월말
 - 대상: 초등교사(5·6학년 담임) 20명, 중등교사 40명
 - 방법: 강의 및 조별토론
 - 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학교생활, 필요한 출발점행동·역량 등 공유

— 기대효과

- ▶ 학교급별 교육과정 간의 간극을 메워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 가능
- ▶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IV-4

학생 사회참여 활동 지원

영역

기타

대상

중·고 (초등고학년 가능)

시기

연 중

— 목적 및 필요성

- ▶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지역사회에 피력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등 학교를 벗어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함
- ▶ 학교 내 동아리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활동을 추진하기에 제한되는 면이 있어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움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 중고생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협력
-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참여동아리를 만들고(학교자체, 타학교 연계) 자체적으로 활동하되 유관기관·단체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

— 세부 운영계획

- ▶ 2월~4월: 청소년 사회참여동아리 지원계획 홍보
- ▶ 3월~4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 구성 (학교내, 타학교 연계)
- ▶ 4월말: 지원대상 동아리 선정결과 발표 및 동아리별 세부지원계획 협의
- ▶ 4월~11월: 동아리별 사회참여 활동
- ▶ 11월말: 동아리 사회참여 발표회

— 기대효과

- ▶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역의 유관기관·단체가 협력하여 활동의 질 향상
- ▶ 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부 록

Part 3



부록 1

무주교육 비전설정 전문가위원회 활동 경과

— 배경

- ▶ 무주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자 함
- ▶ 일회성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무주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 ▶ 교육의 본질,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무주군의 현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논의하고자 함

—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

- ▶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
- ▶ 무주 교육의 중장기 비전 설정
 - 행복한 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 꿈을 키우는 학교: 다양하게 활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교
 - 교육으로 무주의 비전 세우기: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서부터 시작
- ▶ 교육지원예산 추가 확보 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안) 개발

- ▶ 현행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찾기
- ▶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학교 지원 방식 개선
 - 각 기관(학교 · 교육청 · 지자체)별 예산집행방식의 차이 공유
 - 행정과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논의

— 「무주교육 비전 설정 전문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위원회 구성

구분	교육 지원청	초·중등 교장(감)	초등학교사	중등학교사	계
인원	1~2	2~3	2~3	2~3	8~11

- ▶ 위원 모집: 2021. 4. 7.(수) ~ 4. 15.(목)
 - 교장(감): 초중등 교장(감)단 협의회에서 추천. 교사-개인별 신청
 - 교실수업개선 실적,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무주 관내 근무경력 등 고려 위촉

— 위원 위촉 현황

순서	구분	이름	성별	소속	직위	비고
1	교장 · 교감	김선경	여	무주중앙초등학교	교장	위원장
2		이주흥	남	무주초등학교	교감	
3		장필동	남	무주중학교	교감	
4	초등교사	김강희	여	적상초등학교	교사	
5		배영진	남	무주초등학교	교사	
6		오지선	여	무주중앙초등학교	교사	
7	중등교사	김혜정	여	무주중학교	교사	
8		이연호	남	안성고등학교	교사	
9		정용문	남	무주고등학교	교사	부위원장
10	교육전문직원	손준모	남	무주교육지원청	장학사	
11		황승길	남	무주교육지원청	장학사	간사

— 회의 장면



— 회차별 논의 내용

회 차	구분	비고
1차	2021. 4. 2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향후 일정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활동내용 논의
2차	5. 1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교육 중장기 비전 설정 토론 •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무주 부군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 토론
3차	〈3차회의준비 T/F〉 5. 27.(목) ~ 6.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교육 비전에 관한 의견 종합, 문서화
	6. 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교육 중장기 비전 설정 토론 • 관련 프로그램 개발(영역별 · 학교급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추출
4차	〈4차회의준비 T/F〉 6. 21.(월) ~ 6. 29.(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사업 평가 》 지자체 교육지원예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예산의 교육적 의미, 예산운영 효율성 점검
	7.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사업 평가 • 교사 · 학생 · 학부모 대상 설문 문항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 토의 • 보고서 초안 검토
5차	8. 2.(월) ~ 8. 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 학생 · 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분석 • 관련 프로그램 토론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 • 보고서 수정본 검토
6차	〈6차회의준비 T/F〉 8. 9.(월) ~ 8. 11.(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수정본 오탈자 수정, 윤문 등
	9.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최종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발간일정 및 활용방안 논의간사

— 회차별 회의 결과(요약)

1차 협의회 (2021. 4. 22.)

▶ [안건 1] 임원 선출

- 위원장: 무주중앙초 교장 김선경
- 부위원장: 무주고 교사 정용문
- 간사: 무주교육지원청 장학사 황승길

▶ [안건 2] 전문가위원회의 목적과 활동내용 논의

- 우선 과제: 무주교육 중장기 비전 설정
- 이후 과제: 무주교육 비전 설정 후, 단기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논의
- 최종 과제: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작

▶ [안건 3] 2차 이후 전문가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3~4주에 한 번씩 협의회
- 회차별 협의회 7일 전까지 안건 관련 의견 제출
- 취합한 자료를 5일 전까지 모든 위원들과 공유
- 모든 위원은 사전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읽은 후 회의 참석
- 최소 5차 이상의 협의회 실시
- 연말까지 진행 가능하나 가급적 9월 내 마무리하도록 노력

▶ [안건 4] 전문가위원회 활동 보고서 발간 시기 · 방법 논의 등

- 30~70쪽짜리 보고서 발간
- 발간 시기, 방법은 추후 결정

2차 협의회(2021. 5. 17.)

▶ [안건 1] 무주교육 중장기 비전 설정을 위한 토론

- 위원 전원이 무주교육 비전설정 관련 의견, 학교급별 중점 교육활동을 작성, 제출
- 위의 두 가지 의견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
- 주요 논의내용: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학생상담, 무주만의 장점, 문해력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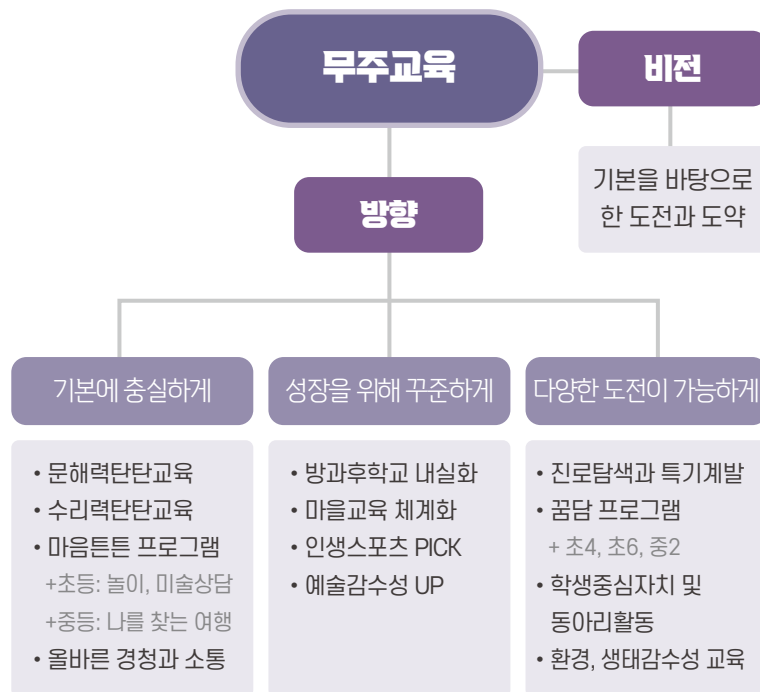
▶ [안건 2]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현안 토의

- 지자체에서 부군수,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장 참석
- 지자체의 교육 자원에 대한 (개인적)생각과 정책기조에 대하여 안내
- 현재 무주군의 교육지원 현황과 성과, 학교와의 적극적 협력방안 등 토의

3차 협의회(2021. 6. 14.)

▶ [안건 1] 무주교육 중장기 비전 설정을 위한 토론

- 의견자료와 2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TF에서 무주교육의 비전과 방향(초안) 작성하여 공유하고 수정 · 보완
- 무주교육 비전과 방향(초안 및 1차 수정안)



▶ [안건 2] 단기과제 추출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토의

- 영역별로 3~4명씩의 위원이 집중 토의하고 내용을 정리한 후 전체 토의
- 단기 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의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논의

① 기본에 충실하게 (김○○ 등 4명)

1. 문해력 탄탄교육

가. 저학년 집중 방과후 한글 해독 프로그램 운영

- 진단부터 철저하게(1학년의 빠른 진단 후 한글 해독 교육 실시) → 교육격차 해소의 첫걸음
- 전 학년 고른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보다 저학년에 집중이 필요함

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한글 강사 수급 및 지원

다. 각 학급에서 의무적인 책 읽기와 글쓰기 교육이 필요함

라. 수업 중 학습도우미(보조교사 등) 도입: 추가 논의 필요

제안1) 온 책 읽기로 한 반에 같은 책 20권을 사주는 것 보다 다른 내용의 책을 20권을 사주면 더 좋을 것 같음.(무주중앙초의 경우 3반으로 총 60권의 책을 읽힐 수 있음.)

제안2)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독서의 달 행사에 독후감 쓰기 행사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음

제안3) 기초학력(문해력, 수리력) 지원시스템으로 방과후교육활동 뿐 아니라 교육과정시간에도 필요한 강사를 지원(수업 중 해당 학생을 분리 교육 또는 통합교육 - 상황에 따라 결정)

2. 수리력 탄탄교육

- 가. 교구 활용 원리 깨치기 교과 및 방과후 수업 실시
- 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수리력 강사 수급 및 지원

3. 마음튼튼 프로그램

- 가. 저학년 방과후학교 다양한 놀이 및 미술 놀이를 통한 상담 활동 전개
- 나. 중학교 1학년 나를 찾는 여행 관련 프로그램 2회 참여
- 다. 마음치유 전문 프로그램 지원(역할극, 미술치료, 푸드테라피 등)

4. 올바른 경청과 소통

- 가. 다양한 경청 및 의사 소통 놀이 실시
- 나. 생활 속 경청과 소통하는 방법 안내

② 성장을 위해 꾸준히 (이○○ 등 3명)

1. 방과후학교 내실화

- 가. 극소인수(2~3명) 참여 프로그램, 출석률 저조 프로그램 정비(폐강) 필요
- 나.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최소 3년 이상) 운영
 - 유능하고 열정적인 강사를 확보하고 꾸준히 운영하여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 체육: 경기단체 · 체육회에서 주관 운영하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수업의 질도 높고, 학생들의 향후 활동에도 훨씬 좋을 것
 - 예술: 무주군 꿈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 다. 방과후학교 교과보충학습의 딜레마: 추가 논의 필요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과후학습도 안하려고 함. 결석 많음
- 심화학습 신청한 학생들도 출석률 저조
- 학습과 휴식의 병행, 자기주도적학습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분석과 조정, 정비 필요

2. 마을교육 체계화: 무주마을교육지원센터에서 심도깊은 논의 진행중

- 가. 마을답사 프로그램의 범위와 위계 설정: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있음
- 나. 마을교사 역량강화: 현재 역량강화 연수를 지속 운영중. 신규 마을교사 양성프로그램 운영 예정

3. 인생스포츠 PICK

- 가. 초등 3~5학년 기간 중 학교운동부, 체육회 주말체육학교,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몇 가지 스포츠를 접하고, 그 중 여건에 맞는 운동을 선택, 지속적으로 참여
- 나. (예1:무주읍) 3~5가지 종목 프로그램을 평일과 주말에 운영. 학생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참여
- 다. (예2:안성 · 설천권) 2~3가지 종목을 평일에 운영. 학생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참여
- 라. (예3:무풍 · 적상 · 부남권) 1가지 종목을 평일에 운영. 선택권은 없지만 해당 종목 실력향상 확실

4. 예술적감수성 UP

- 가. 초 3~4학년 시기 한 학기에 한 가지씩 강좌에 참여하면서 소질 · 흥미를 찾음
- 나. 초등 5학년부터 고교까지 꾸준히 참여하도록 운영

③ 다양한 도전이 가능하게 (이○○ 등 4명)

1. 학생중심 자치활동

- 가. 학생회 전용 결제 카드 발급: 학생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별도 통장과 카드를 발급가능한지?
- 나. 자치회활동 사례 교육: 무주고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 활동이 이뤄진다.(학생회 활동/동아리 부스/교과별 활동) ←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심급식 우선 실시
- 다. 초·중·고 연계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 육성: 풍물(무주초-중-고) / 밴드부(중앙초-무주중-고)
- 라. 무주지역 중·고 동아리연합 페스티벌: 중·고 동아리 활동을 총화하는 축제를 매년 학생의 날에 개최 ← 동아리활동은 결집력과 지속성이 높아 학생자치의 원천.(예:동아리신문만들기대회)

2. 진로탐색과 특기개발

- 가. 진로검사 및 교사교육: 진로검사를 바탕으로 학생상담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
- 나. 지역 내에 직업과 관련된 특강강사 및 체험처의 발굴 보급: 무주지역에

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특강 강사와 직업 체험이 가능한 장소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해서 활용

다. 학교 각종 체험행사에서 진로관련 체험내용 강화: 다양한 직업 체험이나 직업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동일 진로 그룹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라. 진로 관련성을 강화한 봉사활동 장소 발굴 보급: 시간 채우기 아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봉사활동 장소 발굴 보급해야 한다.(요양원,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등)

마. 예체능 학원비 지원: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자체 교육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이 무척 크다. 보통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수준에 비례한 지원 필요

3. 꿈담 프로그램

무주지역의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중2 학생들의 고구려 발해 역사문화탐방처럼 학년 체계에 맞는 역사체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 초4~초5: 교육과정 연계 백제, 신라 역사탐방
- 초6~중1: 조선 역사탐방(서울 등) 또는 근현대사 역사탐방(독도, 5·18 유적지 등)
- 중2: 고구려 발해 역사탐방

4. 생태환경 교육

- 남대천을 생태환경의 소재로 삼아 이 공간의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남대천 변에 게시하는 동아리활동 등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협의회(2021. 7. 12.)

▶ [안건 1] 단기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 토의(계속)

- 프로그램 정교화, 현실성 검토
- 기타 프로그램 제안: 태권도교육 체계화,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

▶ [안건 2] 현행사업 평가

- 도교육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하기는 곤란
- 지자체 교육지원사업 평가를 위하여 TF에서 1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의견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음
- 지자체의 교육지원 중 학교의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학교태권도교육, 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이 있음)

▶ [안건 3] 학생 · 학부모 · 교사 설문조사 실시 여부 결정

- 무주교육의 비전 설정에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 조사 실시
- 문항은 세부 내용을 묻는 방식이 아닌, '비전'이나 '교육 중점' 등을 묻는 '열린 질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음.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받으면 보고서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5차 협의회(2021. 8. 2. ~ 8. 3.)

▶ [안건 1] 단기과제 및 관련 프로그램 토의(계속)

- 프로그램 정교화, 문구 수정
- 기타 프로그램 추가 제안: 초 · 중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지원

▶ [안건 2] 보고서 초안 검토

6차 협의회(2021. 9. 6.)

▶ [안건 1] 보고서 수정안 검토

- 기타 프로그램 추가 제안: 영어교육 강화
-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주국제화교육센터의 평생교육원으로의 전환이 올해 이루어졌고, 우리 학생들은 진안영어체험센터(교육청 직영)에서 영어 체험학습을 실시하게 된 첫 해임. 2021년 운영 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건 2] 보고서 초안에 대한 현장교원 의견자료 공유, 반영여부 결정

- 현장교원 의견: 유 · 초 · 중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스포츠활동 다양화
- 유 · 초 · 중등 교육과정 연계 강화: 반영 결정. 유치원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반영
- 스포츠활동 다양화: 수정 불필요. 우리 지역에서 실시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음

부록 2

학생 · 학부모 · 교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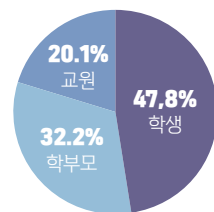
— **설문기간:** 2021. 7. 20. ~ 7. 28.— **설문방법:** 온라인설문(네이버폼)— **설문문항**

1. 구분: 학생, 학부모, 교원 중 선택

1-1. 소속 학교급: 학생과 교원은 초 · 중 · 고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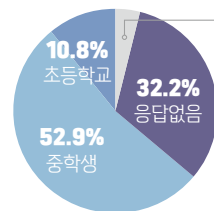
2.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주관식)

3. 문항2에서 언급하신 교육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누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설문 참여 현황**

구분

구분	응답	응답수
학생		150
학부모		101
교원		63



4.1% 고등학교

귀하의 소속 학교급 선택

구분	응답	응답수	구분	응답	응답수
고등학교		13	중학교		166
응답없음		101	초등학교		34

— **설문 결과(그래프)**

— **설문 결과:** 총 응답자수 314명. 이 중 유효응답 269건의 통계임.

구 분	학부모 합계(비율)	초등교원	중학교교원	고교교원	교원합계(비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합계(비율)	비율평균
인성교육·예의범절	69	15	15	8	38 (67)		34	1	35	57.0
시민교육·공동체	13	11	2	2	15 (26)		4	1	5	14.7
학력신장	10		1		1 (2)		17		17	9.7
자기주도	3	3	2		5 (9)	1	5		6	6.0
기초기본교육	4	6			6 (11)				0	5.0
진로교육	3	1			1 (2)		7		7	4.0
독서교육·말하기·쓰기	4		1		1 (2)		1		1	2.3
성교육	2				0		5		5	2.3
창의성	1				0		3		3	1.3
안전	4				0				0	1.3
기타의견	14		1		1 (2)	2	15	1	18	11.3

<1·2항목 분류기준>

- ▶ 개인을 강조한 답변은 '인성교육·예의범절'항목으로, 함께·더불어·공동체의 의미를 담은 답변은 '시민교육·공동체'로 분류하였음

<기타의견>

- ▶ 학부모: 특수교육, 미래교육, STEAM교육, 미술교육, 소통, 경제교육, 인권교육, 영어교육3, 외국어교육2, 아이 스스로 행복을 느끼도록, 학원 못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

- ▶ 교 원: 과학적·합리적 사유방법에 대한 경험, 소프트웨어교육, 환경교육, 평화교육, 지역사회교육
- ▶ 학 생: [초] 건강교육, 개인맞춤교육(한 무리의 군락형식) / [고] 상호존중[중] 학력신장(17명): 공부4, 수학교육5, 국영수사과, 국어, 영어, 체육 기타의견(15명): 학교폭력예방교육5, 차별없는 교육2, 다양한 체형3 등

※ 교육예산 확보 및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도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이상 분포됨

